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7, 다윗왕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7부 다윗왕입니다.

연대기 작성자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을 마쳤습니다.

(Yehud) 시대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 이제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모든 나라의 중심이며, 중요한 유일한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 그는 그들이 어떻게 국가가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그들이 민족이 되고
모세와 함께 백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구속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묘사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작하여 지금까지
마친 역대기의 개요, 즉 약속의 나라와 관련된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그들을 국가로 만드는지, 역대기 기자가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 이전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사울은 그렇지 않은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실제로 역대기에서 반복을 보게 됩니다. 9장 35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사울의 가족은 기브온에 주둔했던 민병대의 일부인 사울의 가족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거의 정확히 반복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사울이라는 사람과 그가 누구였는지 다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10장의 짧은 14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패배 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언덕에서 죽은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 성으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을 그의 군대와 군사들을 위한 장소로, 그리고 피난처로 허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는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다윗이 있던 곳이고, 사실 사무엘은 다윗이 우리에게 사탄, 즉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사울과의 전쟁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막았는지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를 배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 명을 죽였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고,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때는 그들의 옛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과 상대가 되지 못하여 사울의 시체가 치욕 속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의해 구조되는 매우 무서운 때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길르앗의 야베스.

연대기 작성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사울이 왕에서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실제로 역대기 기자가 그의 어휘 중 일부를 소개하는 장의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 어휘 중 일부를 여기 플립 차트에 놓을 것입니다. 특징이 되어 계속해서 소개될 것입니다. 마알(ma'al)

이라고 쓸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는 대개 불성실한 것으로 번역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벨론에 들어갈 때에 개인이든 민족 전체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에 불충실하고, 언약 이 대표 하는 충성의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잃고 불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성실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가 다른 종류의 죄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밧세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결코 그것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점은 다윗이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여전히 마알의 반대자이다. 그는 실패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의 의도에 불충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충실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러한 불신실함이 정죄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계속해서 사용할 또 다른 키워드는 히브리어 단어 다라쉬(darash)입니다.

자, 이것은 추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길은 신실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은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그가 불성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자 그는 강령술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들이 산부인과라고 부르는 것을 보러 갑니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상황을 통해 죽은 자와 일종의 소통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엔도르로 가서 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은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에게 나타나 그에게 정죄하는 메시지를 전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절대 금지된 네크로맨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는 사울이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다윗이 실제로 시글락에서 피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시글락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던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이 구절에도 다윗의 전사들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패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전체 사건을 제시하는 패튼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길갈 산에서 죽는 순간, 이제 다윗이 왕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통치를 확립하기까지의 7년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 어떤 기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대기 작성자는 그 연대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모든 곳에서 어떻게 다윗을 지지하는지를 볼 수 있는 통일된 방식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넬과 요압 사이의 전쟁과 아브넬이 결국 다윗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왕국을 통일할 때까지 이러한 갈등이 있었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글썄요, 그가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헤브론에서 가졌던 지원이 있는데, 이는 이전에 시글락에서 그를 지원했던 모든 군대에 의해 증폭되었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요새에서 다윗을 지원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새에서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러한 변화가 반복됩니다. 아둘람이 바로 그곳이다.

그런 다음 그는 시글락에서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과 헤브론에서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의 이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다윗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과 유다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지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역대기 기자가 이 전체 이야기의 첫 아홉 절에서 바로 선두에 제시하고 있는 다윗의 즉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유다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패했고 우리에게서 왕이 필요하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역대기 기자의 마음속에 충성심을 키워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충성심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한 헤브론에서의 이 대관식은 다윗의 모든 용사가 연합하여 행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루살렘 정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급한 대로, 일어난 전쟁의 연대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아브넬은 결국 이스 보셋 과 사울의 아들들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단순히 다윗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것이 그가 만들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건의 연대기와 순서를 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역사를 통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사무엘하 23장에서 발췌한 것인데, 여기에는 다윗의 용사였던 핵심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3에 대한 언급이 있고 30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소라 본문에서 역대기가 3과 30을 구별하는 방법은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역대기 기자에게는 3인과 30인을 구별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 중요한 저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가 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 짧은 이야기는 예루살렘 바로 남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용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대열을 무너뜨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가 물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윗을 지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다윗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에 블레셋의 전선을 돌파하고 이 물을 길어오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물을 절대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물을 붓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 물을 길러 온 이 사람들의 생명선을 상징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특히 브나야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브나야는 왕궁 근위대장, 예루살렘 왕의 수행원들을 지키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전 시점에 사자라고 불리는 두 명의 강력한 전사를 죽인 브나야가 있습니다. 모압 출신의 아리엘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많은 자릿수를 가진 이집트 거인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손가락과 발가락. 그는 또한 요르단 동쪽에서 온 전사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 용사들이 오는 곳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 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간의 전환 역할을 하는 18절의 짧은 시입니다.

다윗아,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짧은 시들은 그들의 충성심이나 불충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세바를 조롱한 것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세바는 압살롬의 지지자들을 모아 다윗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자기 재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은 누구이며,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다윗에 대한 불충성을 표현하는 두 줄의 기둥이 있습니다. 글썄, 연대기 작가는 그것을 뒤집습니다.

압살롬은 오래전 역사입니다. 이제 군인들은 다윗아, 우리는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군대는 모든 곳에서 왔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윗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3일간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들에서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그들의 지도자이자 왕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는 즉시 사울의 뒤를 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전쟁을 벌이는 부족이 아닙니다. 북쪽과 남쪽이 아닙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그들이 다윗 아래서 이것이 그의 왕국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7부 다윗왕입니다.